

“늘 함께하는 주치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눈길’

서구, 스마트워치·모바일 앱 등 활용
2021년 복지부 시범사업...이후 지속
올해 430명 6개월간 걷기 등 수행
이상 수치 확인땐 전담직원이 점검

“이거 시계는 뭐당가? 차고 땡기면 되는건가?”
2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건강생
활지원센터. 한 어르신이 손목 활동량계(스마트
워치)를 받아 들고 연신 기기를 살펴보다 이렇
게 말했다.
옆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혈압계와 체중계 사

용법을 안내했고,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다 나온다”, “혈압 재면 휴대전화로 기
록이 간다”는 말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센터 안에서는 참여 등록과 사전 건강 스크리
닝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순서에 따라 혈압과 혈당, 신장과
체중을 재고 약력과 보행 검사를 받았고 간호사
들은 스마트기기 사용법과 하루 단위 건강 미션
수행 방법을 설명했다.
스마트워치와 혈압계가 낯선 듯 이리저리 살
펴보는 어르신도 있었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어르신들
이 다수였다.
광주 서구가 시행 중인 ‘인공지능(AI)·사물
인터넷(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

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
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한 뒤 매
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 대상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65세 이상 어
르신으로, 손목 활동량계와 체중계, 혈압계·혈
당계 등 맞춤형 기기를 통한 측정 자료가 모바일
앱 ‘오늘건강’에 기록되면 전담 직원이 이를 수
시로 확인해 건강 미션 수행 여부와 상태 변화를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6개월간 걷기, 혈
압·혈당·체중 측정, 식생활 개선 등 하루 단위 건
강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건강 상담을 받는다.

이상 수치가 이어지거나 장기간 미접속 상태
가 지속될 경우 전화 확인과 대면 점검도 병행한
다.
서구는 올해 신규 모집을 받지 않고 지난해까
지 신청한 대기자 874명 가운데 신청 순으로 430
명을 선정해 이날부터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진
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219명이 사업을 완
료하는 등 성과를 쌓아왔지만, 참여 수요에 비해
예산과 관리 인력이 부족해 올해 신규 대기자 접
수는 받지 않았다.
올해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375명은 내년 사
업 대상으로 남겨질 예정이다.
참여를 기다려온 어르신들은 기대와 걱정을
함께 내비쳤다.

치평동 주민 김운래(69)씨는 “어려워 보이는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걱정은 된다”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관리도 해준다니 한번 참여해
보려 한다”고 웃었다.
서구 양동 주민 양연자(66·여)씨는 “2024년에
신청해 2년 정도 기다린 끝에 내 순서가 왔다”며
“남편이 이 사업에 참여한 뒤 건강해지고 활기
를 찾은 것 같아 나도 신청했다”고 기대를 전했
다.
진승현 상무통합건강센터 팀장은 “초고령사
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
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 사업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늘 함께하는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차량 5부제 시행’ 홍보 중동시태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24일 광주 북구청 효죽2직원주차장에서 북구청 에너지정책팀 직원들이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노동단체, 고흥 굴 양식장 ‘착취’ 추가 고발

전남청에 브로커 5명 수사 의뢰
“해외 거점·조직 범죠티구속 必”

최근 고흥 한 굴 양식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단체들이 브로커
일당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 20여개 노동
단체는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죵가 아닌 국제적
범죄”라며 “브로커 일당이 일자리 알선을 미
끼로 필리핀 노동자들을 유인한 뒤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실상 인신을 구속했다”고 주장했
다.
또 “피해 노동자들을 상시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강제노동을

시킨 정황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증
거 인멸과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일당이 해외에 거점을 두
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조직범죄
로 규정해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존에 파악됐던
국내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공묘자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내국인을 인신매매방지법·직
업안정법 위반과 특수감금·강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에 달라며 전남경찰청
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해당 노동단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여
수지청에 이주노동자 사용자 2명과 불법 소개·
중개업자 4명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
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찬용 기자

李 대통령 허위사실공표자 ‘별도 무고죄’로 재판대에

경기도지사 시절 ‘조폭 유착설’ 제기
다른 조폭 공익 제보했다 되레 달미
혐의 부인...내달 23일 증인 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조직
폭력배와 유착설을 제기했던 인사가 별도 무고
죄로 법정에 다시 한 번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
경환 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에 특정한
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
로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과거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A씨
가 수사 기관에 다른 조폭들에 대한 공익 제보
를 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제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면서 A씨는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았으나, A씨가
별도 범죄로 현재 광주고도소에 수감돼 있어 지
역 검찰청으로 이관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의 고발이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2명, 변호인은 1명을 증
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무고 사건과 직·간접
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증인 신문 등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특정 범죄 조직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로 징역 1년6
개월을 확정받았다. /인재명 기자

광주 중학교서 흥기 소동...2명 부상

서부경찰, 특수상해 혐의 입건

광주 소재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 2
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
의로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흥기를 휘둘른 혐
의를 받는다.
흥기에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건 발생 전 A군은 다른 동급생이 자신의
등을 두드린 데 대해 분개하며 조퇴 허가를 받
은 이후 집에서 흥기를 챙겨 학교로 돌아와 범
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학생들은 A군의 등을 두드린 동
급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
는 한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를
밝기로 했다. /이연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